

오물풍선에 확성기 방송 재개...남북 갈등 고조

北 330여개 살포...수도권 등서 관측 합참 "분석결과 위해 물질은 없어"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서기로 하면서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8~9일 대남 오물 풍선 330여개를 살포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합참모본부는 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8~9일간 식별돼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북한 측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 개가 식별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의 상당수는 바다 혹은 북한 지역에 낙하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은 서풍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북부에서 관측됐고 충청도와 경상도 이남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없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오물풍선은 동해에도 여러 개 낙하했고, 북한 지역으로 간 것도 있으며, 우리측 관측범위를 벗어난 뒤 산과 지역과 바다에 떨어진 것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오물풍선 80여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봐서 효율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전날 북풍이 부는 시간대가 아닌데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3차 오물 풍선 살포에도 1, 2차 살포 때와 마찬가지로 격추 사격으로 대응하지 않고 낙하 후 경찰과 함께 수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오물 풍선에는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폐지, 비닐 등 쓰레기가 달려 있었다.

합참은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배포를 빌미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렸고 약 1000개가 남측에서 식별됐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 다시 대북 전단이 온다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단체들이 지난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북한으로 보내자 또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자녀양육 교육·가족갈등 해소 나선다

예비 학부모·한부모·맞벌이 대상 39개 과정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광주시가 예비 학부모, 한 부모,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방법·가족갈등 해소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9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비 학부모, 한부모, 맞벌이 부모 2400여 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39개 교육과정, 총 217회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부모교육은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신혼부부 부모교육에서부터 아동청소년

기 갈등해소 및 학습지도까지 자녀 성장에 따른 생애주기별 부모역할 교육이다.

영유아기 자녀 발달특성 교육과 아동·청소년기 학습지원 및 소통지원 교육, 아버지 역할지원 교육, 다문화가족 특성 이해 및 학교적응 지원 교육, 발달장애 및 경제성지능(의심) 아동 양육코칭 등 5개 분야 부모교육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자녀 학습지도, 발달장애 아동 인성소통교육, 경제성지능(아동) 양육코칭,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아버지 교육 등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을 통해 부모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원하는 부모는 누구나 각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동안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신·출산부모교육을 포함한 44개 부모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2473명을 지원하고 있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한부모·장애아동 양육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가족형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가족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지역균형발전, 낙후도 반영 정책효과 높여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지역 간 격차와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낙후도를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사각·중복지역을 파악해 지원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양원택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브리프를 통해 낙후도를 반영해 정책 대상, 수단, 지원 강도 등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구·소득·재정 지표 등을 토대로 229개 시·군·구의 낙후도 지수를 5개 등급으로 산출한 바 있다.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1등급(38곳), 2등급(48곳), 3등급(60곳), 4등급(45곳), 5등급(38곳)으로 분류했는데, 전남의 경우 1등급(8곳) 지역에 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영암·함평·완도, 2등급(5곳)에 담양·곡성·영광·장성·신안 등이 포함됐다.

3등급(6곳) 지역으로는 목포·순천·나주·화순·해남·진도, 4등급(2곳)에는 광양·무안, 5등급(1곳) 지역은 여수 등으로 조사됐다.

낙후도 등급이 높을수록 인구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모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양육비 안주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제재

여가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3천만원 밀리거나 3회 미지급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공서비스 추천

행정안전부는 6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도입된 서비스다. 해당 지역을 찾은 이용자가 지역 유명 관광지부터 식당, 숙박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이나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광·장흥·해남과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충남 태안 등 34개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는 'AI로컬 플래너' 기능도 제공된다. 목적지와 일정, 여행 테마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적합한 관광 시간과 동선도 포함된 '맞춤형 여행코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7월까지 집중 홍보

전남도가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전남도는 7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언론과 누리소통망(SNS), 사군 전광판, 이·통장 회의, 다중이용장소 홍보포스터 게시, 120콜센터 홍보스티커 부착 등의 방식으로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는 수원 세 모녀 사건(2022년 8월)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26일 시작했다. 365일 24시간 상담원 5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땐 국번 없이 120

번을 누르면 된다.

콜센터 상담원은 도움을 요청한 전화 상담 건을 접수해 상담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알리고 시·군과 읍·면·동 관계부서는 방문·유선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파악, 적절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나선다.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는 지금까지 1820건의 상담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이 중 326건은 복지상담으로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지원 연계, 사례관리 등 상담자별 위기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밀양박씨낙촌공후자랑공파보 편찬안내

일제공공주파(光州派)
密陽朴氏駱村公後佐郎公逸齋公派譜를 편찬코자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수단(收單): 2024. 12. 31까지
-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통지 하오거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상호 연락 참여하도록 협조바랍니다.

연락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70-38
총무이사 박인철
(010-3480-0545)

2024. 06. 10.

밀양박씨낙촌공후자랑공(일제공)중증 회장 박영호 (010-3643-1771)

지분, 물건 바로 삽니다

010-9552-7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매매

010-3605-5000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공고

아래의 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피상속인의 표시
 - 피상속인: 문이네
 - 생년월일: 41113
 -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년단79
 -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 최후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장산정신요양원(유교리, 애중복지재단)
 - 사망일자: 2023. 8. 15.
- 위 각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산과 유증받은 자는 그 재민 또는 수족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재민 또는 수족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표시
 -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상열
 - 주소 및 신고처: 목포시 정외로 22, 302호 (여암동, 새광빌딩) ☎061-242-3000
 - 2024년 6월 10일
 -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상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닝**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